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2016. 5. Vol 240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자 투 리

한줌 햇살도 비켜가는 음지넋 자투리 땅
오고가는 손길들 쓰레기나 던져 놓는
아무도 봐 주지 않는 길섶으로 나앉은 곳

여기차게 돌아나는 새싹들의 푸른 함성
모로 누운 햇살도 실눈 뜨고 다독일 때
앞사귀 겹겹이 키워 널찍이 자리 편다

시간의 흐름타고 어밀어밀 살찌운 땅
키를 재는 나무들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어머니 자투리 같은 삶도 그렇게 가꾸어 졌다



김 혜 경

- 충북 진천 생
- 현대시조 78회 신인상 당선
- 8회 청풍명월 전국시조백일장 차하
- 포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우리시 동인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6. 5. Vol 240

Contents



충주호 약아섬

하늘 품은 충주호로 향하는 시원의 발걸음을 고향 잃은 수물민들의 애뜻함을 뒤로 하고 어머니 태반같은 넉넉한 동지를 찾아가고 있다.

- 04 | 제347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문
- 07 | 대(對) 중국 해외세일즈
- 08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충청북도 · 충청북도교육청)
- 10 |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
- 11 | 청소년의회교실 · 학생진로체험
- 12 |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 14 | 각 위원회 의정활동 상황
- 20 | 제347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 22 | 대집행부질문 · 답변
- 23 | 5분 자유발언
- 26 | 건강 · 법무상식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원논단
- 31 | 의정일기

-
- 발행일 2016년 5월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연구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A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buk.kr>



충청북도의회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제347회 임시회를 열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했다.

제347회 임시회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위 구성 등 현안 해결 앞장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요구

충북도의회(의장 이언구)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등 지역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사업에 161만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선정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이송하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도의회는 또 대집행부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11건의 의원대표발의 안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4월 26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 「제3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출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최광옥 의원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여 △충청북도 투자유치



제 347회 임시회 주요처리안건

- △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 △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 △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 △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 △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진행 현황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문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현장 제정 등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어 이숙애, 박우양, 박병진, 이종욱, 강현삼, 이의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 △영동대학교 이전과 교명변경 △희생 당하고 있는 충북소방의 현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현장 제정 중단 △오창지역 실내수영장 건립지원 △국립철도박물관 선정 관련 등을 주제로 각각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는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5월 4일 실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의회운영위원장이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백지화 추진을 위해 제안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특위 구성에 따른 위원들을 선임했다. 이와 관련, 이연구 의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결집하여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시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종욱 의원과 임현경 의원이 각각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사고 예방 △불량레미콘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각각 요구했다.

정부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선정 강력 요구

균형발전 향한 충북도민의 염원 담아 건의

충북도의회는 지난 4월 26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했다.

도의회가 이번에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1980년 복선화 이후 35년간 161만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이번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KDI본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회는 “충북선철도 조치원~제천봉양 구간(115km)은 호남고속철도~충북선~중앙선~원주·강릉선 연결을 통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의 마지막 완성구간”이라며 “특히 충주~제천봉양 구간(32km)의

우선 착수는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충북선 운행의 위험구간을 원천 해소하고 중앙선 연결을 통해 강호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며 “향후 본예타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이 철도친화도로 거듭나고, 국가 X축도망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2016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문

오송분기역 선정 근거는 오송역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충북선을 활용하여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은 수년 전 경부축 고속철도망의 완비와 지난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15.4)을 계기로 경부와 호남축은 완성되었지만, 유일하게도 강원~호남축 즉, 강호선 고속 철도망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 구간의 완성을 위한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역사적인 숙명이자, 꼭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속도가 평균 50km/h 에 불과한 충주~제천봉양간 32km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천억원 이상 소요되며, 사업구간 내 산악지형과 급곡선이 많아 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노선개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이 철도친화도로 거듭나고 국가 X축도망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의 2016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161만 충북도민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6. 4. 26.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충북도의회, 충북도와 함께 대중국 세일즈외교

이언구 의장, 중국 유창그룹 친분 활용 쌀 10톤 수출 성과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도의회를 대표해 4월 8일부터 2일간 김문군 농정국장님과 함께 상하이 롯데마트에서 열린 '대(對)중국 쌀수출 현지판촉행사'에 참석했다.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4월 8일부터 2일간 김문군 충북도 농정국장님과 함께 대중국 충북쌀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상하이 롯데마트에서 열린 '대(對)중국 쌀수출 현지 판촉행사'에 참여, 대중국 세일즈 외교에 직접 나섰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된 현지판촉행사에는 농식품의 거대 소비국인 중국을 겨냥해 우리의 프리미엄급 고품질 농식품의 판촉홍보를 위해 전국 6개 쌀 관련 영농조합이 참석했다.

충북에서는 광복영농조합(청주시 내수읍 소재, 전병순 대표)이 참여하여 충북쌀 판촉홍보를 전개했다.

광복영농조합법인 전병순 대표의 요청으로 참석한 이언구 의장은 이 행사에서 왕레이 중국 유창그룹 대표와 만나 충북쌀 수출을 당초 계획 5톤에서 10톤으로 물량을 대폭 확대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왕레이 중국 유창그룹 대표 등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쌀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대중국 수출지원을 위하여 활발한 세일즈외교를 펼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자리에서 이언구 의장은 “중국은 중산층의 인구 증가

와 더불어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식품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지 추세”라며 “앞으로도 우리 충북쌀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언구 의장과 왕레이 중국 유창그룹 대표는 개인적으로 절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어 대중국 쌀수출(10t)에 이를 십분발휘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경제위원회, 주(駐)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방문

이와 함께 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과 김학철 의원이 집행부 국제통상과장 등과 함께 4월 20일 3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우한지역을 방문해 우호 교류를 다졌다.

상하이 충북사무소 방문에서는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청취에 이어 리엔 충북 명예대사를 만나 충북 제품의 수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왕아이쥔 중백그룹 전(前)동사와 간담회를 실시해 충북제품 수출 지원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 우한지역 방문에서는 우한 보세구 한국관을 시찰하고 허시핑 호북성인대부주임을 만나 충북도의회와 호북성인대와의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과 김학철 의원은 4월 21일 중국 주(駐)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를 방문해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협의했다.

충청북도 · 도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결산검사

충청북도 19건, 도교육청 12건 지적... 시정 및 개선 요구



충청북도의회는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해 3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는 지난 3월 제34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 31일부터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 금고 결산 등 예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김학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윤은희 · 이광진 의원과 김창섭 · 허동진 공인회계사, 김기봉 세무사, 김대옥 · 지선영 · 이문재 전직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20일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보다 세밀하고 강도 높은 검사를 벌였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예년보다 많은 지적·개선사항을 도출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과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도의회가 이번에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적·개선사항으로 총 31건이 도출됐다.

충청북도의 지적·개선사항으로는 △사방사업 수의계약 최소화 및 주변여건 반영을 통한 사업 시행 강구 △기금설치조례 정비 및 기금관리운용계획 철저 수립 △청남대관리사업소 공유재산 임대료 지연징수 및 세입결산 부적정 △소방헬기 소모부품 구입 부정당업자 제재 부적정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 추진 부적정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극적인 교부 △결산상 잉여재원 일부를 채무상환 또는 재산편입 등을 우선 검토 후 익년도 일반재원으로 사용 등 19건이 지적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적·개선사항으로는 △특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용역예산 편성 부적정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유지 및 학교시설 과잉 투자 방지 대책 강구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순

세계잉여금 재원관리 개선을 통한 사장 재원 방지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대책 강구 △특성화고 / 마이스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개선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산정 제도 개선 등 12건이 지적됐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불용예산 발생사유,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상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지난 4월 6일 충주특수학교 신축부지와 충주학생회관 수영장 보수현장을 확인하고, 15일에는 용곡~미원 지방도 건설현장, 음성군의 자생식물원, 충북미래여성프라자를 방문하는 등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꼼꼼하게 확인했다.

김학철 대표위원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와 재정운영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산검사를 진행했다”며 “도출된 검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에 따른 감사위원의 의견서는 4월 2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제출되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5월 10일까지 감사의견서를 첨부·제출하여 6월 정례회 기간 중 의회의 최종 심사·승인을 거치게 된다.

충청북도의회가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참조)



충청북도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충청북도 지적사항 19건]

- 지방사업 수익계약 최소화 및 주변여건 반영 사업시행 강구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정산절차 및 불용액 처리 부적절
-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 미흡
- 기금설치조례 정비 및 기금관리운영계획 철저 수립
- 공사 계약 준공시 정산 철저
- 청남대관리사업소 공유재산 임대료 지연징수 및 세입 결산 부적절
- 충북도립대학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
- 학교용지 부담금 교부 소극적 대처
- 결산상 잉여금 채무상환 검토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수 소홀
- 환경보전기금 운용 미흡
- 소방헬기 소모부품 구입 부정당업자 제재 부적절
-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절
-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절
-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 추진 부적절
- 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 세입예산 편성 소홀
- 국고보조 공모사업 예산집행 개선
-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개선

[충청북도교육청 지적사항 12건]

- 특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용역예산 편성 부적절
-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
- 공사계약 준공 시 정산 부적절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절
-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유지 및 학교시설 과잉 투자 방지 대책 강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운영 개선
- 순세계잉여금 재원관리 개선
-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개선
-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대책 강구
- 특성화고 / 마이스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개선
-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산정 제도 개선
- 과년도 수입 징수 대책 개선

장선배·이광희 의원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장 의원, 사회복지 보조금 누수막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
이 의원, 교육환경·활동에 실효성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원과 이광희 의원은 5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와 월간지방자치 주체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과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은 5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실시된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전국의 각 시·도의회 의원들이 펼쳐온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서 우수의정 사례를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된 도의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월간지방자치의 주최·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이날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한 장선배 의원은 대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 전담부서인 '복지사업관리팀'을 신설·운영하는 정책을 제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복지 보조금 누수를 막고 복지수혜자와 사회복지 현장을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평가다.

이광희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 자치조례 입안에 있어 의원 개인의 연구 활동 뿐 아니라,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선배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이어 2회 연속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시상했고, 이광희 의원은 2014년 '제1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 이어 이번에 또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시상했다.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연구 의장은 시상식장을 직접 방문해 우수상을 수상한 장선배 의원과 이광희 의원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정·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 도의회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의식 키워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는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의정체험교실인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도의원이 되어 도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으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이해 △의장선거 △조례안 제안 설명 △건의안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추천으로 올해에는 12개 학교가 참여학교로 선정돼 연간 6회에 걸쳐 420명이 참여하게 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들였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도의회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참가자들의 호응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4월 15일 을 들어 처음 실시한 제46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청주청남초등학교와 충주남산초등학교 학생 60여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이날 7층 회의실에서 도의회에 대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입교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또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고 주요 안건처리,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며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에 실시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장선배 의원과 김학철 의원 등이 참석해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3월 29일과 4월 6일에는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과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충북학습관 학생들이 초청해 '충청북도의회 진로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진로체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충청북도의회를 직업 체험 장소로 제공하여 도의회의 기능을 알리고 직업인으로서의 도의원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하여 도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직업·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로체험에 참석한 학생들은 충청북도의회에 대해 소개받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안건(조례안, 건의안, 자유발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등 의원들이 하는 일을 체험했다.

진로체험 행사에는 이광희 의원 등 도의원들이 참석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었다.

이언구 의장은 학생들에게 "도의회를 폭넓게 개방해 도의회를 홍보하고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진로체험교실을 열었다"며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의 기회를 통해 도의원의 꿈도 키워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진로체험은 연간 6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진로체험전산망(꿈길)(<http://cbcje.ggoomgil.go.kr>)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의회는 4월 15일 청주청남초등학교와 충주남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열고 의장 선출과 안건처리,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며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했다.



충청북도의회는 4월 6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교실'을 열고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의회의 기능과 도의원의 역할 등을 체험하게 했다.



충북 청주에서 세계 무예고수들 ‘한판 겨룬다’



‘세계 무예의 조화’ 주제로 9월 3~8일까지 청주 일원서 열려
전통 무예 15개 종목에 60여개 국가 2100여명 선수단 참가

오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청주에 세계 무예 고수들이 모여 최고수를 가리기 위해 자웅을 겨룬다.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세계 무예의 조화’ (Harmony of the World Martial Arts)를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리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무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유네스코에서 전통무예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고, 2011년 택견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충북도는 2005년부터 무술올림픽 학술용역을 시작했고, 이후 무예를 스포츠화하고 생활체육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건강·웰빙,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 있다.

지구상 최대 규모의 종합무예대회가 될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상황과 종목들을 살펴봤다.

올림픽 수준의 무예분야 국제 종합경기대회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오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청주 일원에서 열린다.

‘청주세계무예 마스터십’에는 정식종목 13개, 특별종목 2개 등 15개 종목에 걸쳐 60여개 국가, 2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무예분야 국제 종합경기대회로, 공식기록이 남는 국가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서 펼쳐지는 경기종목은 우리나라를 종주국으로 하고 있는 씨름, 태권도, 택견, 민속궁, 그리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경기인 기사종목과 합기도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우슈, 일본의 주짓수,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씨름인 크라쉬, 러시아의 삼보, 태국의 무에타이, 그리

고 동양에서 유럽으로 보급돼 세계화된 킥복싱 등의 종목에서도 열린 경쟁이 벌어진다. 공식종목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소림무술 시범단처럼 각국의 특색있는 무예들이 참가하는 연무대회와 무예의 계파와 관련없이 무예의 기량을 겨루는 격파, 낙법 등의 기록경기도 펼쳐진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에는 무예의 학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 국제회의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서구 중심의 스포츠로 구성된 기존 올림픽과 달리 세계 전통무예가 중심이 된 새로운 국제 종합무예경기대회로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통무예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무형유산인데다 무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충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무예영역 선점 필요성이 대두돼 대회 개최를 통해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무예 중심 충북의 위상 강화

이번 대회는 국비 9억원과 지방비 43억원 등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서울대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비지출 349억원, 생산유발 605억원, 고용유발 5억원 등 모두 959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무예관련 산업 육성과 활발한 마케팅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 대회 개최를 통해 무예경기나 용품, 교육, 건강 등 무예관련 산업 및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무예 콘텐츠를 문화산업 동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계전통무예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예와 관광산업을 연계해 세계무예중심도시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제무예센터를 중심으로

2016 CHEO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2016 世界무예마스터십대회

2016. 9. 3.-9. 8. (6일간)
청주시 일원(청주체육관 등)

세계무예올림픽의 발원지 충청북도 청주

무예로 하나로!
무예로 세계로!

충주대석우 문화체육관
충주유도화관
충주체육관 (메인경기장)
충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충주인라인롤러경기장

태권도 · 택견 · 우슈 · 연무경기

유도 · 주짓수 · 크리쉬

하는 무예클러스터 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북이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서 위상 강화는 물론 국가 브랜드 구축 효과는 물론 서구 올림픽에 견주는 무예 올림픽으로서 차별화된 창조 및 스포츠 산업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출신 이동준 · 전기영 홍보대사 위촉

대회 조직위는 그동안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무예의 학술적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국제 무예단체와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대회의 지속적 가치실현을 위해 세계무예위원회 창립 협력을 위한 세계 국제무예단체와의 협약도 체결했다.

조직위는 또 대회 홍보를 위해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충북 출신 전기영 교수(용인대)와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청주 출신의 영화배우 이동준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동준씨는 “전세계 무림의 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막중

한 책임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고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무예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 최고의 종합무예올림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기영씨도 “이번 대회가 무도인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모든 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적 대회 개최 위해 최선의 노력

조직위는 대회를 앞두고 경기, 문화, 홍보, 시설, 인력 등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종목별 본부 구성 및 운영, 참가국 대표자 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양무술을 중심으로 태동한 올림픽에 비해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서양권의 전통을 이어가고 보존하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무예올림픽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계 무예올림픽 개념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47회 임시회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6일 위원회를 열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먼저 이날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여 정책제언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검토’와 의정참여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참여단 운영 개선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회는 또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재개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와 함께 “경북상주 측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으로 하루 2200톤이 넘는 온천폐수가 괴산 신월천으로 유입되어 유기물과 부유물의 퇴적, 수온상승에 따른 수생곤충·부착조류·어류의 전멸 등 환경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백지화를 위하여 제반활동을 촉구·지원할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임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했다.

이에 대한 구성 결의안은 5월 4일 실시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위 위원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최병윤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임희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이광진 의원,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 등 7명이 선임되어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의안 심사와 당면업무 협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6일 위원회를 열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47회 임시회

충북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한 근거 마련



정책복지위원회는 4월 2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 현안에 대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7일 여성정책관실, 보건의복지국, 충북발전연구원과 현안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박종규 의원,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박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명칭을 기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충북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연구원 이사 추천 및 기금설치 등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며, 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조사 등을 위한 연구원 분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충북연구원은 새로 부여된 명칭에 맞도록 단순한 지역발전 개념을 넘어 도민 삶의 질이라는 가치적 측면까지 확대된 명실상부 충북지역 종합연구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여성정책관에서 행정부지사로,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격상시키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반영을 상위법령에 따라 강제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장 의원은 심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충북도 실·국의 관심은 낮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국의 관심도가 높아지길 기대 한다”고 주문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수강료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증 장애인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설 대여료 반환기준의 반환사유 발생일과 반환금액 조건을 강화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또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참여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47회 임시회

도·시유재산 교환처분 대상지 등 현장점검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회무)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7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옛)충주의료원 부지와 충주시 용탄동에 위치한 시유림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 받고,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처분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했다.

연철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는 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하기 위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누리소통망(SNS)서포터즈의 위촉과 활동내용,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도지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게시물의 관리사항 중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는 해당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건설협회 및 충청북도기계설비협회와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견을 나누고 해당 조례안 제정 목적 중에서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연철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자발적으로 방법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교육훈련을 통해 방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27일 (구)충주의료원과 충주시유림 교환 부지 등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47회 임시회

농업의 (新)블루오션 곤충산업 지원 조례 제정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2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농업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곤충산업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지난 4월 26일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을 보면 최근 국가간 FTA 체결과 먹을거리 다양화로 국민들의 쌀 소비 감소와 수입 농산물 증대로 인해 농업과 농촌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육성,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규철 의원은 “의정활동 중 많은 농민들을 만나는데 농사짓기가 힘들고 수익이 낮아 농업과 농촌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제

정되는 조례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여 농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 위원 변경과 위원장을 농정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수출확대 방안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운영확대 등을 위해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한편,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함은 물론 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확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농업기술원·경제통상국·농정국 등 위원회 소관 원·국과 간담회를 갖고 “충북도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충북경제 4%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과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산물클러스터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 “강풍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지원 할 것”등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47회 임시회

선진소방안전 벤치마킹을 위한 직무연찬 개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과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등 신규 사업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소방시설을 견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4월 26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건설소방위원장이 제안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을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충북선 복선화 이후 35년간 161만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에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또 4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타시·도 선진소방안전 시설을 견학하며 위원회의 직무역량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도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나날이 부각됨에 따라 부산시의 소방안전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배양하고, 부산시 119안전체험관의 우수사례를 충청북도 119안전체험관 건립계획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연찬회 기간 중인 4월 27일 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고층화재 전담을 위해 건립한 센텀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70m굴절사다리차와 고성능펌프차 등의 최첨단장비 시연을 견학하고 5월 3일 개관을 목표로 시범운영 중인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부산시만의 특화시설 등을 꼼꼼히 살폈다.

위원회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재난환경 변화 대응은 물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27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과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등 신규사업 계획안 2건을 심사하여 경제적인 타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4월 27일 시범운영 중인 부산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듣고 부산시의 특화시설 등을 꼼꼼히 살폈다.

교육위원회

제347회 임시회

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 등 심의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4월 2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윤홍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는 충북지역 독립유공자 선양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행사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기념행사와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하는 법인·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학생들에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망차단방식에는

약점이 있어 기술적 안전조치가 강화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이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는 충청북도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실질적인 위기대처 능력 증진,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최근 충북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보고 받고 이숙애 의원과 김양희 의원은 가해 교사가 거쳐 간 모든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정밀조사 하라고 요구하고 가해자와 관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재검토하여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정확한 피해 규명을 위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종규 의원)

- 기관명칭(충북발전연구원 → 충북연구원)변경에 따른 조례명 및 자구 수정 등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원대상 추가: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충북 지부
- 지원사업 추가: 여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2개월 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연철흠 의원)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충청북도의 지도·감독
- 모범 자율방범대원 표창 등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
- 교육안전의 범위 규정 등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
-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반환 등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 '계약금액'과 매입기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총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표기
-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매입감면 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여 연장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대표발의: 윤은희 의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
-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연철흠 의원)

-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도민의 도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운영
-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 이용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종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 교육감의 책무
- 기본원칙, 교육 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선배 의원)

- 위원장: 여성정책관 → 행정부지사
- 당연직 위원: 예산담당관 등 → 기획관리실장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사업위치: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영덕리 일원
- 사업규모: 약 2,010,456㎡
- 사업기간: 2014년 ~ 2021년
- 사업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총사업비: 약 2,505억 원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도지사의 직접 세무조사 대상기준을 규정
- 도세조례로 정하고 있던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특례를 도세 기본조례로 이관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황규철 의원)

-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시행
-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의영 의원)

- 위원장을 농정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
- 수출확대 방안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확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숙애 의원)

- 교육감의 책무로 정보화 지원의 효율성 증대와 사이버음란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규정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에 관한 사항 신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율 축소 등
- 감면율: (현행) 면제 → (개정) 100분의 75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출연 예정액: 60,000천원(도비 100%)
- 17개 시·도 출연금 총액: 1,014백만원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위 치: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일원
- 사업규모: 약 1,122,285㎡
-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
- 사업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총사업비: 약 942억 원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유기농업연구소 신설
- 미래전략산업 발굴 업무이관: 미래전략기획단→경제통상국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이관: 여성정책관→행정국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윤홍창 의원)

- 교육감의 책무
- 지방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현행: 도비 40%, 시·군비 60%
- 변경: 도비 30%, 시·군비 70%(청주시는 80%)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청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일반직: 4급 1, 6급 +1
- 연구·지도직: 연구관 +1, 연구사 +1, 지도사 2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
- 가축방역심의회 기능 개정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재산의 취득
 - 《충주시유림 교환 취득》
 - 위 치: 충주시 용탄동 산33-1
 - 취득규모: 임야 2,154,735㎡
 - 재산가액: 7,175백만원
 - 《구)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 위 치: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등 7필지
 - 처분규모: 부지 14,398.00㎡, 건물 10,680.68㎡
 - 재산가액: 7,560백만원
 - 처분사유: (구)충주의료원 도유재산과 충주시유재산의 교환



학교용지부담금 · 투자유치 실적 교육공동체 권리현장에 관련하여

최 광 옥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관련

[질문]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충청북도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423억 1천만원이 현재까지 미전출 상태입니다. 2014년 충청북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254억원이었으나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미전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천만원을 전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활용가능 재원은 400억 원 정도입니다. 또한, 올해 교부세가 2015년 대비 160억원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문제,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재원부담의 가중 등을 고려하면 우리 도의 가용재원은 빠듯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설학교 건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문] 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천만원을 전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도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미전출액을 일시납하여 전출할 의향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미전출금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8억 8백만원씩 전출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교육청과 협의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미전출금에 대해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실적 관련

[질문] 충청북도에서는 투자유치 협약 후 실제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실 투자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별 투자기업마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 시·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지원 및 투자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적관리, 맞춤형 방문상담, 외국자본 유치 추진 등 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권리현장 관련

[질문] 4월 16일 타운미팅 참석자는 누구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실제로 반대 의견자들도 참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월 22일 타운미팅 참가신청서 제출에 관한 공문을 보내 학교 전체를 포함하여 492개 기관에 보냈으며, 학생 70명, 학부모 43명, 교직원 43명, 퍼실리테이터 40명, 강사 3명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질문] 현장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과 관련하여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대폰 소지와 관련하여 '교육적 목적 외에 용도로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의 주체를 교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 "교직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은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배려와 존중을 위한 현장이므로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 중 일리가 있는 주장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되는 조항들을 향후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소지품, 휴대전화 등의 지적사항을 현장 적용성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아동학대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급

정부가 미취학·장기결석 초·중학생 28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명의 아동·청소년이 학대 받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충북 차원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ONE-STOP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조사, 사후처리 및 지원에 관련기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상시화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직장교육과 학부모 교육, 연수교육과정,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에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 및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후 조치입니다.

충북도의회 이름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통과 촉구 서한을 19대 국회에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과 소송비용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언론, 정부, 지자체, 사법기관, 도민 모두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필요합니다.



박 우 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영동대학교 이전과 교명 변경 관련

영동대는 설립과 함께 낙후된 영동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군민들의 믿음과 큰 기대를 갖고 개교했습니다. 이후 영동군민은 한 마음으로 지역에 위치한 영동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영동대가 충남 아산에 제2캠퍼스를 건립하려는 사실이 밝혀지며 영동군민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올 초 영동대의 아산캠퍼스 개교로 학생들이 아산으로 이주하면서 대학 주변의 원룸과 상가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분위기도 황량한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군민들은 영동대가 교명변경을 시작으로 남아있는 학생마저 아산캠퍼스로 옮겨 갈 것이란 소문이 돌며 재단과 학교 측에 강한 불신·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영동대가 교명변경을 철회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아산 캠퍼스로의 중심축 이동을 차단 할 방안 모색입니다.

셋째, 영동대와 영동군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등 각종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병 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충북소방, 더 이상의 희생은 안돼

최근 충북의 소방공무원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사님도 인식을 함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시책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노후 장비와 차량을 교체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을 위해 중앙과 타 시·도와는 달리 충청북도 는 소극적 소방행정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최근 몇 달 사이 2명의 소방관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사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지금이라도 예산을 책정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은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지사께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책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
(교육위원회)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중단해야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서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것처럼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총과 충북교육시민단체는 “권리헌장”은 학교의 규칙·규정을 와해시키고, 학부모·교사를 인권 탄압의 대상으로 보며 그들로부터 인권을 지키는 것이 권리라고 교육하는 비정상적인 내용으로써 교사·학부모·학생 간 갈등 유발 소지가 있는 심각한 권리헌장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쟁점사항에 대한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쟁점사항들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가 편향적이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폭넓은 소통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권리헌장 제정을 조급하게 강행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이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도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여 충청북도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조속히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오창 주민들의 건강·여가선용 위한 수영장 건립 지원을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을 위해 도지사님께 오창 실내수영장 건립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이 건강과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장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운동과 레저가 있지만 특히 시민들은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영장 이용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수영장 현황을 보면, 청주실내수영장, 충청북도학생수영장, 청원군민체육센터수영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로는 이용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통합청주시가 발전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고 수영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공공수영장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오창 주민들이 건강하게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건립에 도비 등의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현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 제천시 탈락 ‘유감’

본 의원은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추천위원회에서 철도의 무구한 역사와 상징성을 가진 제천시의 후보지 탈락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을 각 시·도로 요청했으나 충북도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독으로 오송을 입지 후보지로 추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불거지자 도에서는 부랴부랴 제천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 전부터 박물관 유치를 준비했던 오송과는 달리 제천은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아 오송에 후보지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잠시나마 균형발전의 기대를 열망하던 제천 시민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제천시 전폭 지원방안 마련' 이란 생색내기 식의 발언은 울분과 상실감에 빠진 제천 시민들을 달래기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 전에는 왜 전폭적으로 지원을 못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과연 충북도가 소외지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우리 제천 시민들은 기다려 볼 것입니다.



임 현 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불량 레미콘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

요즘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충북 도내의 도로 및 교량 부실공사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는 사고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최근 부실시공의 사례를 보면 보은군의 경우 2012년 11월에서 12월에 타설한 레미콘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을 직접 연결하는 LG로는 준공 후 석달도 채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레미콘 생산 공장의 무분별한 허가를 지양하고, 레미콘불량 원인이 재료부실 또는 단가 비현실화에서 비롯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와 레미콘협회는 생산 공장에 대해 교육 실시 및 출장방문을 통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신기술 공법의 경우 시공업체의 시공실적 확인 및 검증된 혼화제를 사용하고 반드시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시공하고 시공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QR코드(문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제공

충청북도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노안환자, 노인 등 활자를 읽을 수 없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QR코드(문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도입 했습니다

보이스아이코드는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App)을 설치한 뒤 「충북의정」 우측상단에 삽입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캔하면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방식입니다.

QR코드와 비슷하게 생긴 보이스아이코드는 책 2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를 작은 정사각형 바코드 안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각장애인 전용 바코드 리더기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보이스아이코드에 대면 활자정보가 음성으로 변환됩니다.

보이스아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보이스아이'라는 명칭으로 검색하면 되고, 앱은 무료 설치가 가능하며, 아이폰의 경우 설정 기능에서 보이스오버 기능을 실행하면 음성지원이 됩니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토크백(Talkback · 스마트폰 화면

을 읽어주는 기능)을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혹은 스마트폰 거치대를 문서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맞춰 놓으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스캐너 혹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보이스아이코드를 자동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탐색하는 동안에는 '뚜뚜'하는 기계음이 들리고, 인식이 완료되면 '띠리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내용을 읽어 주거나 텍스트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보이스아이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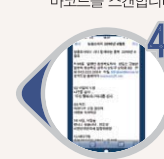
보이스아이 어플을 다운 받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음성출력 버튼을 누르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자



내과전문의 신익상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내 몸의 적신호는 내 뇌의 적신호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경험한다.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은 두통 뿐 아니라 신체 한 쪽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갑자기 한 쪽 눈이 안 보이거나 발음이 어둔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며 걸음이 휘청거리는 등의 증상이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혈관이 막혀서 뇌가 손상되는 뇌경색과 갑자기 혈관이 터져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대부분 60세 이후의 노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경색 발병요인

우리나라 국민은 국물음식을 통한 소금 섭취가 높고, 기름진 음식섭취와 같은 식습관 탓에 고지혈증이 증가하고 혈관이 악화된다. 이로 인해 비만이 늘어나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이 높아진다.

동맥혈관 벽 사이 벌어진 틈으로 기름진 음식에 많은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된다. 동맥혈관 내에 기름이 끼게 되면 그 부위를 통과하는 혈액과 반응해 혈전 생성이 활발해진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동맥은 더욱 좁아지고 딱딱해져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어느 순간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된다. 바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뇌는 단 20초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도 마비가 나타난다. 4분이 경과하면 막힌 혈관 주변의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다행스럽게도 하나의 혈관이 막히면 주변 다른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대체, 지원해주는 비상기능이 발휘된다. 이 때문에 일부의 뇌세포는 버틸 수 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세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뇌경색 환자들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인 세 시간을 넘기면 뇌신경이 완전히 죽기 시작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신체장애를 갖게 된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에 주사해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등을 녹여 혈류를 원활하게 해준다.

이후 좁아진 혈관에 혈관확장용 특수철망인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넓혀주게 된다. 뇌경색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발병요인은 노화이다.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성인병 유소견자는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금연, 운동, 음식조절을 통해 생활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진단기술 발전으로 쉽게 뇌혈관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뇌혈관 유착, 동맥과리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혈관에 이상이 있다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예방제를 복용하거나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로 좁아진 혈관을 미리 넓혀 놓으면 뇌경색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메디체크〉





유언(遺言)과 유류분(遺留分)

변호사 박종일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사람이 사망하면 그 소유 재산은 일정한 범위의 친족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먼저 상속을 받을 사람을 순위에 따라 정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의 비율을 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미리 사망 후에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씩 줄 것인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 사망 후에 남은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며 사후에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씩 주라고 미리 정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하면서 망인이 남긴 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전에 미리 상속순위, 상속비율, 상속재산 분할방법등을 미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유언이 진정한 것인지에 관한 다툼이 생겨도 유언을 한 사람에게 그렇게 유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유언을 해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아무리 그 유언이 진정한 것이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하고, 보통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여러 번 할 수 있고, 이미 한 유언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언이 있으면 이제는 법이 정한 상속순

위와 상속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을 기대하고 있던 상속인들은 불의의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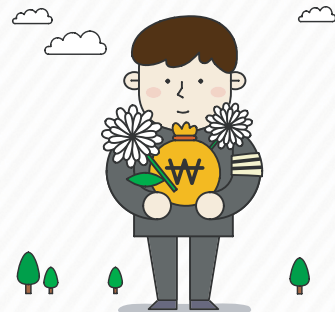
상속인 중 일부가 부모를 설득하여 모든 재산을 자신들에게만 주는 내용으로 유언을 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을 기대하고 있다가 유언으로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언을 한 사람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이 없었으면 받았을 상속분의 2분의 1(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그런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과 비슷한 것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상속회복청구권'은 유언이나 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속재산을 가로챈 사람에게 그 가로챈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언에 의해 적법하게 상속받은 사람에게 그 일부를 나누어 달라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4월 21일 청주선프라자에서 열린 '충북개발공사의 새로운10년을 향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4월 19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이시종 도지사 등과 함께 4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범도민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 청주교육대학교 프로젝트형 사회참여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이숙애 의원 주관으로 도의회를 방문해 의회 관련된 설명을 듣고 의정을 체험했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4월 27일 전국 최초로 고층화재 전담을 위해 건립한 '센텀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장비 시연을 관람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5월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위원장실에서 현장 제정에 반대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현장 관련 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5월 21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진천 농다리 일원에서 산행을 하고 김봉곤 예절학교를 견학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 충청북도의회 이연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4월 15일 음성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4월 18일 제천시 장락동에 개관한 '북부영어체험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 선 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후반기 의회의 문 앞에서

10대 충청북도의회가 반환점 앞에 서 있다. 7월이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 전반기 의회를 곰곰 되짚어볼 시간이다.

전반기 의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14년 6.4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시중 지사가 당선됐고 반대로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의 2/3를 넘는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소수로 전락하면서 도지사에게 대한 도의회의 정치적인 견제가 강화되는 구조가 됐다. 교육감도 새누리당의 대척점에 있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됐고 이념적인 갈등이 격화됐다. 과거에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의회 분점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양상은 사실상 처음이다.

10대 도의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치성과 이념성의 과잉이라고 생각된다. 정치적인 성향이 역대 의회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됐다. 지방의회, 지방자치에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색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전반기 의회 내내 도 및 교육청과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공방이 끊이질 않았는데, 의회 구성원들 스스로 이를 절제하거나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후반기에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우선적으로 성찰해야 할 부문이 아닌가 싶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전반기 의회 내내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 여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지 못했고, 결국 새누리당이 의장단과 상임위

원장을 모두 독식함으로써 갈등이 장기화됐다. 원구성부터 여야 간 타협과 상호존중의 정신을 보여주지 못해 여야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자리싸움만 한다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

예산안 심의에서 보여준 정파성도 다시금 곱씹어 봐야 할 사안이다.

예산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예산심의를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당론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들이 많다. 전반기에 도민들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의회 전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도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도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인데 도민들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거나 앉았는지,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잠시 맡겨진 자리를 제 것처럼 생각하지나 않았는지 반성한다. 의회 내에서 타협과 상호존중 보다 정파적 이해와 아집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도민과 도정을 위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도 자문해 본다.

기분을 벗어나고 처음 마음이 바뀌면 무엇이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후반기 의회의 문 앞에서 있는 지금, 스스로에게 또다시 묻는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믿음과 배신

엄재창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예언자, 신앙인이었던 알리기에리 단테가 전세계 인류에게 남긴 영원불멸의 거작 신곡(神曲)은 자신의 우상인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지옥 편에서는 인간의 죄를 9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고리로 구성하여 이야기가 펼쳐진다.

9개 고리는 가장 가벼운 형량부터 가장 무거운 형량의 아홉 단계로 구성된다.

그 중 아홉번째 고리가 바로 ‘배신자’들이 얼음에 덮인 네 개의 구역에 나뉘어져 얼어붙어 있는 곳이다. 단테는 ‘배신’을 살인과 강도보다 심각하며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겼다.

논어〈안연편〉에서 공자는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를 묻는 제자 자공의 질문에 ‘군대, 식량, 믿음’이라고 답하면서, 그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덕목으로 ‘백성으로부터의 믿음(民無信不立)’을 꼽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사례이다.

2015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을 직접 거론하여 ‘배신의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다.

그 여파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 공천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승

민 의원의 대구 동구 ‘을’ 선거구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 마지막 날까지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유승민 의원은 결국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옥새공방’이라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국회의 ‘배신의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등을 돌렸고 그 결과 공천 잡음의 내용은 부메랑이 되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상치를 밑돌고 여당의 참패로 이어지고 말았다. 결과를 놓고 보니 〈맹자 1편 양혜왕〉에서의 ‘증자가 말하길 경계 하고 경계 할지어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구절이 떠오른다.

‘배신의 정치’가 결국 여당에게 ‘참패’로 돌아오고 만 것이다.

단테는 “우리의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에 처해 있었네”라고 했다. 이때 단테는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와 자신의 문학적 우상인 베르길리우스를 어두운 숲속을 헤맬 때 등대와 같은 길잡이로 여기며 헤쳐 나갔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 구성을 놓고 ‘어두운 숲 속, 배신의 미로’에서 헤매는 모습을 번번이 지켜보게 된다.

지금 여·야 지도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등대는 ‘배신의 정치’가 아닌 ‘믿음의 정치’가 아닐까?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